

무안군, 음식관광 활성화 위한 맛집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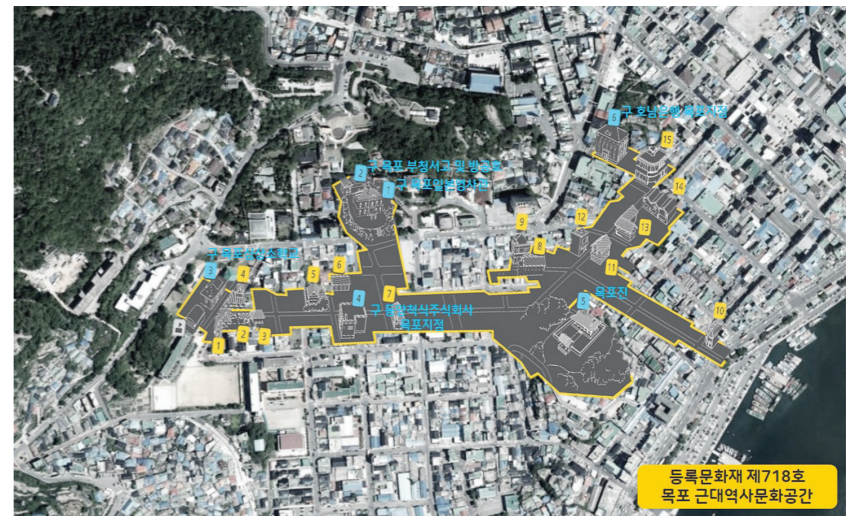
무안군은 지난 8일부터 무안맛집 육성을 위하여 관내 5곳의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무안연꽃축제 요리경연대회에 참여했던 요식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희망자에 한해 5개 업체를 컨설팅 대상으로 최종 확정

관내 5곳 요식업체 대상 맞춤형 현장컨설팅 메뉴개발·위생관리·판매전략 등 1:1 코칭

했다.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메뉴개발, 위생관리, 판매전략, 고객서비스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전문컨설턴트의 1:1 현장 코칭을 받게 되며, 전문 컨설팅은 TBK외식창업전략연구소 김태수 소장과의 명인 구본길 대가가 함께 실시한다. 업체와 전문가 간 충분한 사전 소통과 교육·시식을 통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으로 현장코칭이 마무리되면 5개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

무안=이기성기자



등록문화재 제718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목포시, 역사공간 보존·활용 속도낸다 재생활성화 사업 본격화...건축자산 보수·정비 등 추진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만호·유달동 일대 11만4000여㎡로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점 단위가 아닌 면 단위 국가등록문화재(제718호)로 지정됐다.

이 곳은 조선시대 목포진부터 근대의 관공서, 주거, 상업시설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산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구)일본영사관(근대역사관 1관)과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근대역사관 2관) 등 목포의 근대를 엿볼 수 있다. 또 노동운동과 조각쟁이, 항일운동 등 일제강점기 당시 민중의 저항이 펼쳐진 공간으로 3대항 6대 도시였던 과거 목포의 역사가 응축돼 있어 '지붕 없는 근대역사박물관'으로도 불린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19일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목포만의 독특한 매력을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면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은 목포의 매력과 가치를 더욱 높이는 자릿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목포시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건축자산을 보수·정비하고, 이를 역사문화공간을 재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된다.

시는 사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근대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용역과 근대건축자산 정밀실측 용역을 실시 중이다.

기록화한 데이터베이스를 다각도로 스토리텔링해 목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근대역사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수립 용역과 홍보 등 실용적인 종합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목포=박정수기자

함평군, 한국수산자원공단과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업무 협약

2025년까지 사업 추진...고부가가치 낙지자원 증강 기대

함평군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지난 17일 '함평군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관한 업무관리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함평군이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1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됐다.

군과 공단은 이날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5년간 함평만(42ha) 일원에 어미낙지 산란 최적지 확보, 낙지 산란장 조성, 집적폐기물 제거, 낙지자원 이식, 먹이생물

이식, 어정자율관리, 효과조사 등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국비 20억 원을 포함 총 40억 원의 사업비가 연차별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상의 함평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고소득 어종인 낙지의 산란·서식장 조성해 낙지자원 증강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비롯한

어촌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자원회복 대상종의 자연산란·서식장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공급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함평=김광춘기자

박우량 신안군수, 공약 사업 이행 85.7% 달성

박우량 신안군수의 민선7기 공약 이행률이 지난해 12월말 기준 85.7%를 (평균진도율 59%)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4(천사)의 섬' 브랜드 대내외적 홍보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권역별 조성 △김.왕새우.개체굴 학교개설 전문인력 육성 △65세이상 전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군민오감 만족 '비스공영제' 완벽한 정착 등 24개 사업이 완료되었다.

반면, △혁신 소형 공항의 조속한 착공 △장산↔자라 연도교 국가사업 반영 △비금↔추포 연도교 국가사업 반영 등 9개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으나, 국·도비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공약 이행을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신안=이덕주기자

영광군,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작성 연중 무료지원

임시창고·농어업용 저온저장고 등

영광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료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작성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및 영광군 건축조례 제20조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창고, 농어업용 저온저장고 등이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되는 배치도·평면도 등의 설계도면은 군민들이 직접 작성하기에 어렵고 생소하여 건축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경비발생 또는 어려움이 발생하여 신고 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설계도면 무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약 120건의 무료 설계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군민들은 총 3,600만원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건축팀에 방문하여 가설건

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안내와 설계도면 작성 지원을 받아 민원서류를 윈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영광군청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설계도서 작성 대행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에게 건축 행정이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기술지원

영암군은 3월 하순 과수 발아시기에 배·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사전예방을 위한 방제적기 약제 살포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한그루의 나무에서 발생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준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개화 전 약제방제 사업비(40백만원)를 확보해 배·사과 재배 농가(298농가, 334ha)에 적용 약제와 작업도구 소독제를 공급했다.

과수화상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배는 꽃눈이 트기 직전, 사과는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에 1차 방제에 등록된 약제(동제화합물)를 뿌려야 한다.

군은 배의 경우 발아기와 전엽기 사이인 3월 19일 ~ 3월 25일, 사과는 발아기와 녹색기 사이인 3월 28일 ~ 3월 31일 까지를 개화 전 방제 적기로 설정하였으며, 방제대상인 배·사과 재배 농가에서는 공급된 약제를 해당 과종별 방제적기에 반드시 살포해야 한다.

영암=조대호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